

## 부패연루 당직박탈·교체지수 도입

〈개인 지지도가 당 지지도보다 낮을 땐 교체〉

새정치, 광주에서 1차 혁신안 발표...재보선 원인 제공시 무공천  
김상곤 위원장 “文 리더십 부재·기득권적 행태로 호남민심 이반”

###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 강행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회’ (이하 혁신위)는 23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도록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또 현역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제도를 즉각 실시해 막말을 비롯한 해당 행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교체 지수’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불법선거나 당비 대납이 적발되면 당원 자격 정지와 함께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하지만, 첫 혁신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 기존안을 ‘재포장’ 한데다 당 혁신의 근본이 될 당 정채성과 방향성에 대한 혁신안이 아닌 공천 혁신안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광주에서 1박2일간 혁신위 워크숍을 한 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인 ‘당내 기득권 타파 방안 및 기강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당규를 제정해 ▲3분의 2 이상이 외부 위원으로 이뤄진 평가위원회 구성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 등을 고려한 교체지수 적용 등의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제한해 정치 신인과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공직선거 120일 전, 즉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손연재·양학선이 기량 뽐낼 U대회 체육관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을 10일 앞둔 23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계·리듬체조 경기장으로 신축된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 체육관이 화려한 외관을 뽐내고 있다. 〈헬기조종 광주시소방항공대 대장 박창순, 기장 이정근〉

아울러 당 기강 확립을 위해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 현역 의원과 당직자의 당직을 즉시 박탈하도록 했다. 특히 당내 불법선거나 당비 대납이 적발되면 당원 자격 정지는 물론 당직을 박탈하고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고강도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는 광주 등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우리 당 정치인의 기득권적 행태가 우리 당에 대한 호남의 심각한 민심 이반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새 사무총장에 그동안 계파갈등 소지로 논란을 빚었던 수도권 출신 3선인 최재성 의원의 임명을 강행했다. 또 전략홍보본부장은 재선의 안규백 의원, 수석사무총장에는 김관영 의원,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박광은 의원, 디지털소통본부장에는 홍종학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알립니다

### 제 60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 발표회



27일(토) 오후 1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일보사와 (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제60회 호남예술제’가 뜨거운 성원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각 부문 최고상 수상자들의 작품 발표회를 갖습니다. 문화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16·17·18면〉

- 주최 : 광주일보사, (사)아시아문화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 나주시

光州日報社

### “테러 꼼짝마 ... 단 1%의 가능성도 차단”

함께 해요! 성공 U대회

#### ② 김준영 경비단 특공대장

#### “시설물·주요 인사 완벽 보호”

“광주U대회가 평화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에 대비, 안전확보를 위한 물샐 틈 없는 경비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회 기간 요인 경호와 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전남경비단 특공대장인 김준영 경정(광주지방경찰청 특공대장)은 23일 “저를 포함한 모든 대원들은 역대 국제대회 중 가장 안전했다는 평가를 받을 자신감에 차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장은 국제 스포츠대회의 역사를 보면 세계의 이목을 이용하려는 테러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슬람 무장단체인 IS 역시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에서 대형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번 U대회 특성상 IS 등 테러조직이 주요 목표로 삼는 국가의 선수들이 다수 참여하는 만큼 방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대장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단 1%라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모든 경기장과 선수촌 등 시설물은 물론, 심판과 경기 임원진 등 주요 인사의 철저한 경호를 위해

모든 시설물에 대한 현장적응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 특공대원들은 세계 어느 특수부대보다도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대회 기간 특공대의 활동 모습이 전 국민에게 치안에 대한 안심과 체감 안전도 향상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영 특공대장은 “국제대회를 치르는 만큼 광주시민이 어느정도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을 갖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우리 경찰도 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U대회 관련기사 ▶ 3·7·8·21면

### 행자부 “문화전당·추진단 직제개편 재검토”

광주 국회의원들 면담서 밝혀  
입법예고된 개편안 수정 시급

행정자치부가 아시아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공무원 조직 축소 및 위상 격하 논란을 빚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제 개편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주목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주 국회의원들

도 행자부 장관과의 면담, 국회에서의 원탁회의 진행, 직제 개편 수정의 당론 채택 등을 추진, 정부 압박에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23일 새정치연합 박재근 의원(서구 갑)에 따르면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직제 개편안 논란 확산과 관련, 지난 22일 의원실을 방문해 “문화부가 입법 예고한 직제개편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행자부에서는 지난 22일 저녁 추진단의 과를 증설하고 문화전당 인력 증원 등을 포함한 변경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행자부와 문화부에서는 현재의

직제 개편안에 대해 지역 및 정치권의 반발이 크다는 점에서 입법 내용을 검토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차관회의’ 일정을 미루기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행자부 내부적으로는 이미 부처간의 협의가 끝난 내용을 다시 수정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해진다. 기획재정부도 예산 등의 명분으로 현재 입법 예고된 수

준 이상의 증원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된 문화부 직제개편안의 수정까지는 상당한 진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광주 국회의원들은 23일 긴급 회동을 갖고 문화부 직제 개편안 수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임동욱기자 tuim@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국민 유정  
손연재  
출전  
광주U대회  
UNIVERSIADE  
GWANGJU 2015  
D-9



새로운 모험의 시작  
The GLA-Class

